



2018평창올림픽 개회식이 9일 오후 8시 평창올림픽스타디움에서 시작된다. 지난 3일 열렸던 리허설 장면. 양희성 동아일보 기자 yohan@donga.com

‘전통과 현대의 미’ 콜라보 개막 공연... ‘평화의 창’ 열리다

더반의 기적, 이전 평창의 꿈으로!

전 세계에 존재감 알린 2전 3기 평창신화
역대 최대 규모 92개국·2900여명 선수단
최종 성화 점화자, 김연아·이지 지미 관심

9일 오후 8시 전 세계 약 25억 명의 시선이 평창올림픽스타디움으로 향한다. 2003년 평창이 동계올림픽개최 유지를 실패했을 때 15년 뒤 눈과 얼음의 축제를 우리 손으로 치르는 장면을 상

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평창겨울올림픽은 세 번의 도전으로 결실을 맺은 더반의 기적으로 잉태돼 드디어 전 세계에 첫 선을 보인다.

자크 로게 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은 “처음 평창의 유치 신청을 보고 한국이 평창에 동계올림픽 유지를 신청한 것으로 착각해 깜짝 놀랐다”고 털어놓은 바 있다. 그만큼 평창은 국제적으로 무명의 낯선 고장이었다.

그러나 이제 평화를 상징하는 겨울올림픽 개최지로 전 세계를 만난다. 평창은 2011년 7월 7일 오전 0시18분 동계올림픽 유지를 성공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IOC총회에서 자크 로게 위원장이 “평창”을 외치는 순간 해외 언론은 ‘평창이 더반에서 기적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평창은 2003년 프라하 IOC총회에서 첫 번째 실패를 겪었다. 1차 투표에서 최다득표를 했지만 결선 투표에서 캐나다 밴쿠버에 단 3표 차이로 뒤졌다. 2007년에는 과테말라 IOC총회에서 러시아 소치에 또다시 4표 차이로 개최권을 내줬다. 그러나 10여 년간 겨울올림픽 개최를 포기하지 않고 섬 없이 각종 인프라를 개선해 더반에서 총 95표 중 63표를 획득해 1차 투표 과

반을 얻는데 성공했다.

9일 개회식엔 전 세계인들의 관심이 모아진다. 약 3만5000명의 관중은 현장에서 특별한 추억을 나눈다. 개회식은 한국의 전통문화의 현대 문화의 융합을 바탕으로 펼쳐지며 약 3000명의 출연진이 함께한다. 가장 관심을 받는 부분은 최종 성화 점화자. 외신은 2010 밴쿠버올림픽 여자 피겨 싱글 금메달리스트인 김연아가 아닐 경우 ‘빅뉴스’라고 전망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공동입장을 하는 대한민국과 북한 인사의 공동 점화를 예상하기도 한다. 최종 성화 점화자는

101일 동안 7500명이 전국 2018km를 이어 달린 성화를 전달 받는다. 성화는 점화 방식도 관심이 크다. 개회식은 오후 7시부터 사전공연이 열리고 8시에 시작돼 10시 10분에 종료된다.

평창동계올림픽은 개막식 이후 25일까지 17일간 열전에 돌입한다. 역대 최다인 전 세계 92개국 약 3000명의 선수단이 함께한다. 4년 전 소치 때보다 4개국이 늘어났다. 금메달 역시 역대 최대인 102개다. 나이지리아 등 6개 나라가 겨울올림픽에 처음 참가하는 큰 의미도 있다.

평창 |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이기정·장혜지, 컬링 믹스더블 예선 첫 날 1승1패

예선 1차전 핀란드에 기권승
중국과 2차전선 연장 끝 석패

2018평창동계올림픽 컬링 믹스더블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대표팀 이기정(23)-장혜지(21)조가 예선 첫 날 1승1패를 기록했다.

이기정-장혜지 조는 8일 오전 강릉 컬링센터에서 열린 믹스더블 예선 1차전에서 핀란드의 토미 랴타마키(50)-오오나 카우스테(30) 조를 9-4로 물리쳤다. 대한민국의 평창올림픽 첫 승을 책임지며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으나 오후에 열린 예선 2차전에서는 중국의 바더신(28)-왕루이(23) 조에게 연장 접전 끝에 7-8로 석패했다.

젊은 패기로 핀란드를 몰아붙인 1차전과 달리 2차전 초반에는 크게 고전했다. 바더신-왕루이 조의 노련한 경기 운영에 좀처럼 점수를 올리지 못했다. 3엔드에는 장혜지가 투구 순서를 헛갈리는 실수까지 범해 대량실점을 허용하기도 했다. 4엔드가 끝났을 때는 1-6까지 물리며 패색이 짙어졌다. 그러나 5엔드에는 대량득점에 성공하며 반전의 계기를 만들었다. 후공으로 나서 환상적인 투구를 선보이며 순식간에 상대 스톤들을 여럿 쳐냈다. 4점을 올려 5-6까지 단숨에 추격했다. 바더신-왕루이는 대량득점을 노리며 6엔드에 ‘파워플레이’를 신청했으나 단 1득점에 그쳤다. 이기정-장혜지는 기세를 놓치지 않고 7엔드에 2득점하며 7-7 동점을 만들었다.

마지막 8엔드에도 승부를 보지 못 한 두 팀은 연장 9엔드에 돌입했다. 승부는 마지막 스톤에서 갈렸다. 후공으로 스톤을 던진 장혜지의 스톤이 중국 스톤보다 조금 더 멀리 벗어나 중국의 승리가 최종 결정됐다. 둘은 패전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3차전을 준비한다. 9일 오전에 같은 장소에서 노르웨이를 상대로 예선 2승에 도전한다.

강릉 | 정은성 기자 award@donga.com



평창올림픽 컬링 믹스더블(혼성 2인조) 대표팀 이기정(왼쪽)-장혜지 조가 8일 강릉컬링센터에서 중국을 맞아 혼신의 집중력을 보여줬다. 강릉 | 김종원 기자 won@donga.com

“후배들아, 올림픽서 후회를 남기지 말라”

전이경 싱가포르 쇼트트랙 감독
자신의 첫 작품 샤이엔 고와 참가
한국의 후배들에게 응원 메시지

“후배들에게요? 금메달 이야기만큼은 하기 싫어요. 하하.”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을 하루 앞둔 8일, 강릉선수촌은 귀한 손님을 맞이했다. 주인공은 싱가포르를 사상 첫 동계올림픽 무대로 이끈 전이경(42) 여자쇼트트랙대표팀 감독이었다.

동계올림픽 2관왕에 빛나는 전 감독은 2015년 11월 싱가포르 빙상계의 부름을 받고 선수들을 지도하기 시작했다. 전설의 손에서 탄생한 첫 작품은 샤이엔 고(19)다. 전 감독은 샤이엔을 집중 지도한 끝에 싱가포르 최초의 동계올림픽 출전권을 손에 쥐었다.

싱가포르 ‘결사대’는 선수 1명과 임원 5명이 전부인 탓에 행사 분위기는 다소 조촐했지만, 이들 모두는 밝은 미소를 띠며 환영식을 즐겼다. 입촌식 직후 만난 전 감독은 “사실 우리는 올림픽 정신에 맞춰 출전에 의의를 둔 팀이라”며 웃은 뒤 “태극기가 게양되는 입촌식이면 더 좋았겠지만 어느 국가든 간에 이러한 행사는 감동스럽다. 다만 평창올림픽 유치위원회에 물담으며 노력을 많이 했는데 대회 분위기가 조금은 처진 듯해 아쉽다”고 말했다.

적응훈련을 위해 한 달 전 경기도 고양에서 베이스캠프를 차렸다는 전 감독은 싱가포르에서보다 연습량을 대폭 늘렸다. 2시간하던 하루 스케이팅 훈련이 4시간이 됐다. 올림픽에서 의미 있는 완주를 펼치기 위함이다. 전 감독은 “솔직히 말하면 (샤이엔이) 끝내는 말아 놓은 상태지만, 최대한 노력해 선두그룹과 함께 레이스를 마치는 일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한참 후배인 한국선수들을 향한 응원도 잊지 않았다. 전 감독은 “여자는 한국~중국~캐나



전이경 싱가포르 쇼트트랙 대표팀 감독(왼쪽)이 8일 강릉선수촌 입촌식에서 제자인 샤이엔 고와 다정하게 포즈를 취하고 있다. 강릉 | 김종원 기자 won@donga.com

다의 3파전이 치열해 보인다. 그러나 남자는 예측을 하지 못하겠다. 혼전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조언 한 마디를 구하는 취재진의 부탁엔 “사실 금메달 따라는 이야기는 하기 싫다. 얼마나 부담이 될지 알기 때문이다. 현역시절에도 그러한 질문을 들으면 최대한 피해가려고 했다”며 웃었다. 그러면서도 마지막 한 마디를 곁들였다.

“후회가 남는 경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것도 올림픽 무대에서 말이다.”

강릉 | 고봉준 기자 shutout@donga.com

편집 | 인도영 기자 do02@donga.com